

이슈페이퍼

2016.7.20.

집배원 노동자의 초장시간노동 실태와 ‘무료’ 노동시간 분석결과 발표

이진우_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요약>

언제까지 우체국은 초장시간 노동에 의한 살인기업으로 남을 것인가

- 우정사업본부는 산재통계상(2005년~2014년 공무원연금자료 분석)으로도 7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여, 4위에 랭크되었음. 지난 2013년 12월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에 의하면 집배원노동자는 연간 3천 시간 이상의 초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장시간 노동으로 지탄받는 한국의 평균노동시간인 2,200시간의 1.5배에 달하는 추치임.
- 우정사업본부조차도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 즉각적인 인력증원’ 이라고 인정하면 서도 실제 인력증원, 견배 문제 해결, 초과노동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음.

꼴병들고, 죽어나가는 우체국은 그만! 23% 인력충원만이 해답이다!!!

- 2014년 이후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우정사업본부 내부 통계로 본 집배원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초장시간(연 평균 2,888시간)이었음. 집배원들은 매달 19.6시간 만큼의 무료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고, 턱없이 부족한 인력 23%를 당장 충원해야 할 상황.
- 이런 초 장시간 노동이 온갖 사고와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의 원흉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임.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고,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는 당장 인력충원을 진행해야 할 것임.

1. 연구자료

- 우정사업본부에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초과근무세부내역>을 각 집배원이 신청(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록)
- 183명의 집배원이 각각의 초과근무세부내역을 받아, 총 5,053건의 월별 초과근무세부내역 사례를 취합함.
- 9개 지방청(서울청, 경인청, 충청청, 전남청, 전북청, 경북청, 부산청, 강원청, 제주청), 41개 우체국(총괄국 기준)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이 연구에 참여함.

지방청	우체국	건수	지방청	우체국	건수
서울청	도봉	28	전남청	광양	28
	여의도	56		광주	83
	종량	223		광주광산	75
	중앙	28		논산	24
	합계	335		진도	54
				합계	264
경인청	계양	461	경북청	경주감포	147
	남양주	140		동대구	84
	남인천	188		칠곡	167
	시흥	443		칠곡가산	28
	안양	28		합계	426
	양평	28		부산청	남부산
	인천	208	동대구		56
	일산	196	동울산		28
	파주	26	부산강서		140
	파주 적성	28	북부산		28
	평택	168	진주		140
	합계	1914	창녕		112
	충청청	대전	28	통영	14
동천안		223	합계	630	
부여		112	강원청	동해	521
증평		112		합계	521
충주		28		제주청	서귀포
합계		503	서귀포위미		28
전북청	군산	140	제주		28
	합계	140	합계		320

2. 주요결과

1) 분석 진행

- 분석을 진행한 자료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로서 집배원들의 개인별 실제 출, 퇴근 시간 및 실적시간과 초과노동인정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가장 실증적인 자료
- 5,053건의 월별 초과근무세부내역 사례 중 한달 총근무일수(주말포함)가 20일 이상인 경우(3785건)만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
- 한달 중 20일 미만의 근무일수인 경우는 개인질병이나, 우체국의 개별 상황에 의한 것일 수 있어 분석을 더욱 객관화, 일반화하기 위해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진행.

2) 여전한 초장시간 노동 : 일반노동자보다 매주 12시간 더 일해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	월 평균 노동시간	연 평균 노동시간
집배원 초과근무내역 분석 (A)	55.9	240.7	2,888.5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 (B)	43.6	187.5	2,267.2
차이 (A) - (B)	12.3	53.2	621.3
2015년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노동시간 자료	47.8	207	2,488

- 집배원의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55.9시간, 월 평균 노동시간은 240시간, 연 평균 노동시간은 2,888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우정사업본부가 주장하는 2015년 노동시간 통계인 주당 47.8시간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남. 만약, 우정사업본부 노동자들에게 47.8시간 만큼만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면, 무료노동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임. 연 평균 노동시간은 400시간의 차이가 나타남.

3) 불법적인 무료노동 : 1인당 매달 20시간을 착취당하고, 10% 체불임금 발생하는 것으로

	월 평균 노동시간	월 평균 초과 노동시간	월 평균 미지급 노동시간
집배원 초과근무내역 분석	240.7	77.2	19.6
2015년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노동시간 자료	207	44.1	-

- 집배원들은 월 평균 초과 노동시간이 77.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월 평균 노동시간이 우정사업본부 외부 발표자료와 33시간 이상 차이가 나는 것만큼, 월 평균 초과 노동시간도 33시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외부에는 노동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은폐하여, 발표하고 있음이 드러남

- 이렇게 엄청난 일상적인 초과노동시간도 문제지만, 일한만큼 임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매달 19.6시간 만큼의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음.

- 이 수치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미지급하고 있다고 나온 객관적인 자료이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임금지급분 대비 무료노동시간 비율은 (미지급금/지급금)으로 계산 가능,

- 우정사업본부에서 지급하는 임금
= {월평균노동시간 (240.7) - 월평균미지급노동시간(19.6)}
= 240.7-19.6=221.1시간 ->지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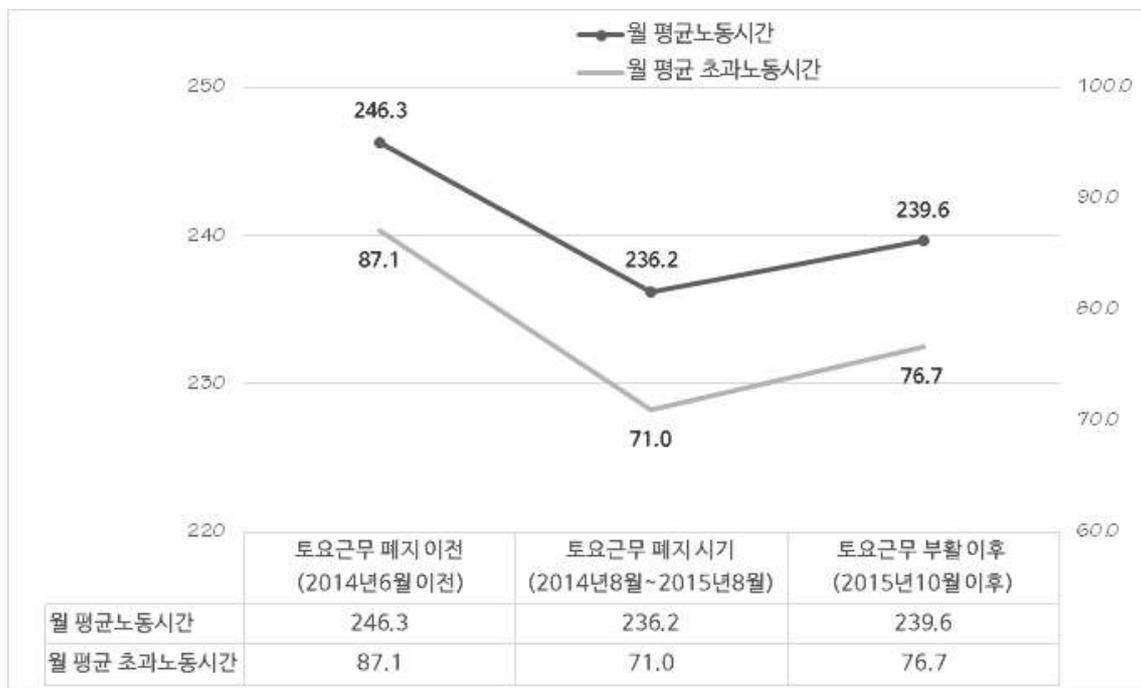
- 임금지급분 대비 무료노동시간 비율
= 미지급금(19.6시간) ÷ 지급금(221.1시간) = 0.088

- 임금지급분 대비 무료노동시간 비율은 9%로 나타나 실제 10% 가까이 매달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

4) 토요일근무 강제부활 = 초 장시간 노동의 부활

-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2014년 7월 12일 집배원의 노동조건건과 주5일 근무 정착을 위해 통상우편에 한해 실시되던 집배원 토요일배달 휴무제를 우체국택배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밝힘. 당시 우정사업본부의 발표에 집배원의 연간 근로시간은 2,640시간.

-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 2개월여 만에 토요일택배를 부활시킴. 2015년 9월 12일부터 다시 토요일근무제가 도입. 토요일근무폐지 시기 동안 주말 여가시간은 증가하고, 월 평균 노동시간은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음. 토요일근무제폐지 도입 달인 2014년 7월과, 부활이 시작된 2015년 9월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



- ‘토요일근무 폐지 이전(2014년6월 이전)’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43.6시간이었으나 ‘토요일근무 폐지 시기(2014년8월~2015년8월)’에는 236.2시간으로 10시간 가까이 감소. 하지만, ‘토요일근무 부활 이후(2015년10월 이후)’에는 다시 239.6시간으로 상당한 노동시간이 증가함.

- 월 평균 초과노동시간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나타냄. 폐지 이전에 87.1시간이었다가 폐지 이후 71.0시간까지 16시간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부활이후는 76.7시간까지 증가한 상태.

5) 턱없이 부족한 인력 23%를 당장 충원해야

-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1인당 연간 정규 노동시간 247일 × 9시간 = 2,223시간
 - 집배원 초과근무내역 분석에 의거한 연 평균 실제노동시간 2,888시간
 - 현재 운영인력비율(%) = 연간 정규노동시간/연평균 실제노동시간 2,223 / 2,888 = 76.9
 - 실제 필요인력 비율 100 - 76.9 = 23.1%
- 연간정규노동시간 대비 연평균 실제노동시간을 대비해보면 현재 인력운영대비 23%의 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여기에 실제 연가, 예비인력률 3.5%을 감안하면 부족한 인력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 ※ 우정사업본부 소요인력산출 세칙에 의하면 기준일이 247일이며 기준시간은 9시간임

6) 우정사업본부의 불법적인 근무시간 단축과 인력구조조정

-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 부당수령이 종종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는 보통 저녁근무 시간외 발생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 문제되었던 것에 반해 집배원의 경우, 실제 오전, 저녁, 주말 가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총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분석결과 보통 집배원의 경우, 오전 8시부터 근무시간이 책정되지만 최근에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오전시간외를 없애고 있으며, 오전 근무명령을 내리지 않아 무료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 함
-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이 처리할 하루 업무량 대비, 시간외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외를 정해놓고 근무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초과노동대비 무료노동이 증대하고 현실임. 이는 집배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약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함. 지난해 우정사업본부는 초과근무예산 1,100억원 중 280억을 반납하여 초과근무수당 반납비율이 25%를 넘어 집배원무료노동을 부채질하고 있음.
-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의 매년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를 인력감축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 2016년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개선방향' 을 보면, 집배인원은 11년에 18,189명에서 15년 18,561명으로 372명 증가했다고 설명하고, 초과근무는 1인당 연평균 11년도에 762시간 대비 2015년에 528시간으로 30.7%가 줄었다고 설명.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근거로 집배 인력구조조정을 의도하고 있음.

3. 결론

1) 언제까지 우체국은 초장시간 노동에 의한 살인기업으로 남을 것인가

- 2015년 시민이 뽑은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 중 우정사업본부는 26.9%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음. 또한 산재통계상(2005년~2014년 공무원연금자료 분석)으로도 7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여, 4위에 랭크되었음.

시민이 뽑은 지난 10년간 최악의 노동자 살인기업			산재 통계 상 지난 10년간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기업	득표율(%)	순위	기업	사망자(명)
1	삼성전자	46.7	1	현대건설	110
			2	대우건설	102
2	우정사업본부	26.9	3	GS 건설	101
			4	우정사업본부	75
3	현대중공업	12.1	5	현대중공업	74
			6	삼성물산(주)건설부문	69
4	현대건설	9.5	7	대림산업	62
			8	롯데건설	61
5	한국철도공사(코레일)	4.8	9	포스코건설/건설일괄	59
			10	사조산업(오룡호)	53

- 지난 2013년 12월 노동자운동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집배원노동자의 노동재해·직업병 실태 및 건강권 확보방안」에 의하면 집배원노동자는 연간 3천 시간 이상의 초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장시간 노동으로 지탄받는 한국의 평균노동시간인 2,200시간의 1.5배에 달하는 수치임.

- 이러한 극단적인 장시간노동은 집배원노동자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 집배원 두 명 중 한 명은 1년 내내 심근경색과 뇌졸중 고위험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됨. 과로로 인한 탈진은 이루어진 모든 조사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 기상악천후에도 배달해야 하며, 절반 이상의 집배원이 배달 과정에서 사고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남.

- 우정사업본부조차도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 즉각적인 인력증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인력증원, 견배 문제 해결, 초과노동 문제 해결의 의지는 없음.

- 2014년 4월 집배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연대모임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우체국 노동자의 중대재해 자료 분석」에 의하면, 집배원의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일반 노동자의 6배 이상, 교통사고는 4배 이상. 2016년 올해에도 벌써 3명의 집배원 순직
- 우정사업본부는 인력부족 상태를 방관하면서 집배원 노동자들을 골병들고, 과로사하게 함. 산재사망 방치하는 중앙행정기관.

2) 골병들고, 죽어나가는 우체국은 그만! 23% 인력충원만이 해답이다!!!

- 2014년 이후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우정사업본부 내부 통계로 본 집배원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초장시간(연 평균 2,888시간)이었음.
- 집배원들은 매달 19.6시간 만큼의 무료노동으로 착취당하고 있고, 턱없이 부족한 인력 23%를 당장 충원해야 할 상황.
- 이런 초 장시간 노동이 온갖 사고와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계질환의 원흉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임.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되었고,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정사업본부는 당장 인력충원을 진행해야 할 것임. <끝>